

나주 출생아 ‘수당’ 신청하세요

18년간 매월 20만원...지원금 총수령액 432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강화...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나주시가 지난해 전남지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강화를 위해 출생 기본 수당을 본격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출생 기본 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18세까지 매월 빠짐없이 받으면 지원금 총수령은 432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아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로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당 신청 시점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나주시 출생아 수는 788명으로 전년 735명 대비 53명(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늘어 2년 연속 전남 시 단위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출생 기본 수당은 양육 초기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사평 빨래방에서 세탁 전 얼룩 등 이불 상태를 확인, 1차 검수 후 개별 이불표를 부착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사평빨래방’ 전국서 벤치마킹

취약계층 무료 수거·배달...주민은 절반 요금

화순군의 공공 세탁서비스 ‘사평빨래방’이 개관 1년 만에 주민 만족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사평빨래방은 취약계층과 군민을 위한 공공 세탁서비스로, 화순읍을 포함한 군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겨울이불 1만원, 일반 이불 5천 원이며, 65세 이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평면 주민은 절반 요금만 부담한다.

전용 차량 3대를 활용해 마을 경로당과 회관에서 이불을 수거한 후 대형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해 세탁 및 건조한 후 최대 4일 이내에 배달까지 완료한다.

화순 사평빨래방은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 지정해 오전 시간대에 전용 차량 3대를 활용, 각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다.

수거한 이불은 수거·세탁·건조 과정을 거쳐 최대 4일 이내 배달이 완료된다.

수거된 이불은 1차 검수를 통해 얼룩과 상태를 확인한 후 이불이 섞이지 않도록 개별 이불

표를 부착하고, 얼룩 제거 등 1차 공정을 진행한 다. 이후 마을별로 산업을 대형 세탁기(50kg)에 투입해 본격 세탁에 들어간다.

세탁이 완료된 이불은 자연 채광을 활용한 1차 건조와 산업용 대형 건조기(50kg)를 이용한 2차 완전 건조를 마친 후, 최종 검수를 거쳐 전용 세탁 봉투에 포장된다.

모든 과정을 마친 이불은 다시 전용 차량을 통해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꼼꼼하게 배달된다.

해당 사업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보조금으로 운영돼 군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70%가 여성과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지역 맞춤형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고 있다.

허선심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화순 사평빨래방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적 관심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도시민 대거 유입...강진 ‘빈집정책’ 전국 최고

민선 8기들어 리모델링 등 추진
60가구 정착 도와...소멸 위기 대응

강진군의 빈집정책이 중앙 정부로부터 최고 정책으로 인정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등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원이 지원된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규모화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농촌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주거·위계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영면에 있는 빈집 10개소를 활용해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농촌 체험시설과 창업 및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농촌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병영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구에 1년 차에 전체 예산의 10%, 2년 차에 40%, 3년 차에 50%를 각각 지원해 농촌빈집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민선 8기 들어 빈집 리모델링 등 강력한 빈집정책을 통해 도시민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강진 병영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주택 모습. (강진군)

있다.

강진군은 지금까지 60가구, 163명의 정착을 지원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단위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골목골목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월세만 내면 된다.

강진군의 성과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여러 지자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강진군을 방문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강

진군의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은 작년 상반기에 강진군 빈집 사업을 벤치마킹 후 하반기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빈집 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일 잘하는 강진군만의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강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군,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96억 지원

94개 농가 6월 12일까지 대출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장흥군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96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옥우 264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장흥 한우농가.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축산농가에 배정된 융자금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명회

오늘 공익활동지원센터...단독주택용지 미건축·상가 공실 해법 고민

나주시는 3일 오후 3시부터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단독주택용지 미건축과 상가 공실 증가 등 혁신도시 문제 현안에 대해 사전 추진한 상인회 간담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다룬다.

이를 반영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나주시가 현재 검토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단독주택용지 증수 및 지구수 완화 등 주로 용

지별 허용용도나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 등이다.

설명회엔 시민과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결과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6~7월 중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하면 관광 할인

함평군, 공모사업 선정...생태공원·해수욕장 등 이용료 혜택

함평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함평군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관광객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명에 주민증을 발급 후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체험·관람·음식점·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평군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입장료 50% 할인,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치유센터 10% 할인, 이리네 농장 체험료 20% 할인 등 관람, 숙박, 식·음료, 체

험에 걸쳐 총 21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함평군 할인 혜택은 할인업체 정보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혜택 제공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모두가 힘을 합쳐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17개 지표 평가...면책보호관·사전 컨설팅 도입 운영 등 호평

장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했다.

장성군은 다수의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 부담

을 덜 수 있도록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을 높이 평가받았다.

여기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장려 혜택을 부여한 점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900여 공직자들이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1억원 투입 하천 쓰레기 230t 수거

담양군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하천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하천 주변에 방치된 플라스틱, 비닐, 폐목재 등 각종 쓰레기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하천에 유입, 수생태계 건강이 훼손되고 있어 하천 쓰레기 수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하천 쓰레기 230t 수거를 목표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산강 본류, 오례천,

월산천 등 하천 인근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수거된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정화사업에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주민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